느릿느릿 걸어보자, 호남의 가을길

내일 무등산·새만금 걷기대회…진도선 '테마 자전거여행'

내달 15일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달팽이 걷기대회'도

"가을 햇살 속에서 들녘을 거닐거나 달려보자."

18~19일 화순과 군산, 남원 등지에서 걷기행사가 열린다. 진도에서는 테마가 있는 자전거여행도 진행된다.

◇**'무돌길 걸으며' 무등산 사랑**=화순군과 (사)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는 18~19일 이틀간 1박 2일 일정으로 '제6회 무돌길 한바퀴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5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걷기대회는 첫날인 18일 오전 9시30분 각화중학교 운동장에서 출발, '무돌길' 1길~7길(22㎞, 9시간 소요)을 걸은 뒤 OK목장에서 묵는다. 이어 2일차인 19일에는 '무돌길' 8길~13길(21㎞, 7시간 소요)을 따라 중지마을을 거쳐 선교동 정자에서 휴식한 뒤 해산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무돌길' 점검을 하는 등 준비해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새만금과 지리산에서 가을만끽**=(사)범전라북도 아리울 내부개발 완공추진협의회는 18일 새만금 비응공원과 방조제 일원에서 새만금방조제(33㎞ 전 구간을 함께 걸어보는 '2014 새만금(아리울) 걷기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총 4개 구간(6㎞, 12㎞, 20㎞, 33㎞)에서 진행되며, 33㎞와 20㎞ 경기는 오전 8시 30분, 12㎞와 6㎞는 오전 9시 30분에 각각 출발한다. 협의회는 새만금 내부 조기개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새만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남원시와 (사)숲길은 18일 산내면 원천, 팔랑마을 일대 '지리산 신선 둘레길'에서 힐링 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자연을 만나고, 고향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걷기축제는 세파에 지친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신선같이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연과 만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걷기축제는 원천마을 주차장에 집결해 풍물패와 함께하는 길 다지기, 길열음 행사를 가진 뒤 팔랑마을까지 4.3㎞ 구간에서 진행된다. 도착지인 팔랑마을에서 산상음악회 등 축제 뒤풀이도 열린다. 참가자 300명에게는 중식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진도군, 테마 자전거 여행**=전남도와 진도군, 진도 싸이클연맹은 18~19일 이틀간 전국 자전거동호인 150여명을 초청해 1차 '진도 자전거여행'을 연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장기간 침체된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린다. 첫날인 18일은 진도 향토문화회관을 출발해 쉬미항~전두~진도대교~벽파항 50㎞ 구간을 달리고, 이튿날은 임회면 십일시를 지나 팽목항에 도착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갖는다. 이어 남도 석성을 거쳐 향토문화회관으로 되돌아 온다. 2차 '테마가 있는 진도 자전거 여행'은 11월 1~ 2일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담양군과 자연과 힐링(대표 최영규)은 11월 15일 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길 구간(왕복 6㎞)에서 '제1회 메타세쿼이아길 달팽이 걷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마을 근처에 레미콘 공장이라니"…주민 결사반대

함평군 월야면 영월2리

공장 철회 요구 무기한 시위

함평군 월야면 일대 마을주민들이 레미콘 공장 건립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함평군 월야면 영월·외치·양정리 주민들은 레미콘공장 건립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순영)를 구성하고 지난 15일 월야면 영월 2구 레미콘 예정부지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부지(6500㎡ 규모)는 '빛그린 산단' 이주민들의 새로운 터전으로 이미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데다 영월·외치·양정마을과 인접해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지역주민들은 "고령의 150여가구 400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생활터전에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분진과 소음, 지하수 고갈은 물론 대형 레미콘 차량의 빈번한 운행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농작물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수차례의 공장철회 철회요구가 묵살되자 지난 15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이다. 어르신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함평군 월야면 영월·외치·양정리 주민 300여명이 지난 15일 영월 2구에서 레미콘 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전북 소식

대사성 질환 치료는 순창서 하세요

정부 치유마을 조성사업 선정

순창군이 '순창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대사성 질환 치유의 최적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순창군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5년 창조지역사업에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응모한 '순창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대사성 질환 치유 마을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순창을 비롯한 3개 지역만이 2015년 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향후 3년간 6억여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창조지역사업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군은 내년부터 3년간 '순창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대사성질환 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에 수립한 '건강장수 종합 발전계획'과 연계 추진해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순창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대사성질환 치유마을 조성사업'은 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 힐링 거점지역 조성사업의 하나로 지역내 농·특산물을 이용해 당뇨·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의 치유를 위한 음식개발과 '치유 빌리지'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은 내년부터 순창의 특화작목인 삼채와 꾸지뽕, 블루베리 등을 이용해 오감(五感)을 만족시키면서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치유 음식'을 개발하고, 이를 농가들에게 보급해 새롭게 조성되는 '치유 빌리지' 투숙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순창 건강장수연구소와 전북도 농업기술원,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세계 김치연구소 등 힐링식품과 치유분야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특화연구 김유석 담당은 "이번 사업은 순창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대사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힐링 순창'의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치유 빌리지의 본격적 운영을 통해 농가의 수익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시 여성 민방위대원들이 지난 14일 창단식을 갖고 '지역안전 지킴이'로서 활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정읍 여성민방위대 전북 최초 창단

20명…재난 예방 등 활동

전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여성 민방위대가 정읍에 만들어졌다. 정읍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여성 민방위대' 창단식을 가졌다.

시는 소방방재청의 지원민방위대 시범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내 최초로 여성 민방위대 창단에 나섰다. 20명으로 구성된 여성 민방위대는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과 재난발생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에 주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게 된다.

초대 민방위대 대장으로 선출된 유효덕(50)씨는 "남성대원과 차별화되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 민방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시민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 앞으로 안보 관련 견학과 생활안전 교육(응급처치 교육, 심폐 소생술)등의 다양한 실전 민방위교육 연찬을 마련해 정읍시 여성민방위대가 '안전정읍 건설'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종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감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월계동 4층 17억(보2.2억 월85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옥,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4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상가 신축 용지
- 창고/공장 용지
- 전원주택용지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급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융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공장부지 "땅" 급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6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융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